

2015학년도 적성모의고사 시험지

학교		반		번호		성명	
----	--	---	--	----	--	----	--

◆ 시험 시간 및 문제 수

시간	영역 및 문제 수		
60분	국어	25 문제	총 50문제
	수학	25 문제	

◆ 답안지에 학교, 성명, 계열, 학교코드, 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 및 마킹 하세요.

◆ 수학 문제풀이(계산)는 시험지의 여백을 활용하세요.

※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세요.



성결대학교
SUNGKYUL UNIVERSITY

1. <보기>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릴 건의문의 서두이다. 이어서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존경하는 경찰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고등학교 학생회장 정민수입니다. 저는 서장님께 우리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앞에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없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단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등교 시간에 달리는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건너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 ① 학생들의 거주지에 따른 통학 수단을 조사한 통계의 내용
- ② 횡단보도로 건너기 위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
- ③ 학교 앞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
- ④ 아침 등굣길에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어 다리를 다친 학생의 사례

2. <보기 1>은 ‘터지다’가 사용된 문장을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보기 2>의 ‘A와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 ㄱ. 홍시가 터지다. 제방이 터지다.
- ㄴ. 입술이 터지다. 가뭄으로 논바닥이 터졌다.
- ㄷ. 비명이 터지다. 박수가 터지다.
- ㄹ. 전쟁이 터지다. 혁명이 터지다.

—<보기 2>—

- A. 추위에 언 땀이 갈래갈래 터져 실핏줄이 내비쳤다.
- B. 황제의 그 말처럼 오래잖아 놀라운 일이 터졌다.

- ① A → ㄱ, B → ㄴ
- ② A → ㄴ, B → ㄷ
- ③ A → ㄷ, B → ㄹ
- ④ A → ㄹ, B → ㄷ

3. <보기>의 ㉠~㉣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보기>—

- 가. 회사 측은 주민 대표에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다.
- 나. 그는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할 기회를 얻었다.
- 다. 피의자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검사에게 (㉢)했다.

- ① 진술 - 발언 - 해명
- ② 해명 - 발언 - 진술
- ③ 발언 - 진술 - 해명
- ④ 해명 - 진술 - 발언

4. ‘우리 민족의 모습’을 어떤 인물에 빗대어 쓰려고 할 때, <보기>의 요건을 가장 잘 갖추어 표현한 것은?

<보기>

가. 굳은 의지로 술한 고난들을 헤쳐 왔다.

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서 도약을 위한 길을 찾고 있다.

- ① 그의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은, 파란만장했던 지난날을 보여주는 것 같다. 구릿빛 팔뚝에서는 노동으로 단련된 강인한 힘이 느껴진다. 지금 그는 일렁이는 파도를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다. 그가 허리를 꼴꼴이 펴 때, 어찌면 우리는 비상하는 한 마리 새를 보게 될 지도 모른다.
- ② 그녀는 코스모스처럼 약해 보인다. 허리가 아픈 듯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은 모습이 가련하기 짝이 없다. 손 등에는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가득한 눈동자는 멀거니 어두워오는 하늘을 향해 있다. 막막한 어둠, 그녀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 ③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온다. 왕방울 같은 그의 눈은 장난으로 가득 차 있다. 씬 없이 두리번거리는 눈빛에서 식욕처럼 왕성한 호기심이 엿보인다. 미로처럼 얽힌 동굴 속이 무섭지도 않단 말인가?
- ④ 그녀에게선 고향의 냄새가 난다. 살구꽃 냄새, 복숭아 꽃 냄새, 그리고 들꽃의 냄새……. 못된 시부모, 어린 자식, 못난 남편을 감싸 안는 넉넉한 가슴이다. 새까맣게 그을린 그녀의 모습에서 대가족을 거둬 먹인 흔적이 역력하다.

5. <보기>의 ㉠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보기>

천(天)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자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되는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현상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 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짚었다.

- 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짚어 건물 외벽을 점검했다.
- ② 짚게 탄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온다.
- ③ 철수는 짚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정원에서 꽃향기가 짚게 풍겨온다.

6. <보기>의 밑줄 친 예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음운의 축약과 탈락은 발음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음의 축약은 ‘ㅎ’과 ‘ㄱ, ㄷ, ㅂ, ㅈ’이 따로 발음되기 힘들다는 데서, ㉡‘ㄹ’의 탈락은 ㉢자음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ㄹ’의 발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모음의 축약과 모음 탈락은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① ㉠ : 나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 ② ㉡ : 이렇게 사니까 행복하니?
- ③ ㉢ : 이번 역은 선릉역입니다.
- ④ ㉣ : 여기에서 널 기다렸다.

7.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8. <보기>를 본 학생이 작성한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알립니다. 학생회에서는 학교 축제에 사용할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걸개그림의 내용은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즐거운 축제를 이루어 내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개그림에 어울리는 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구를 통한 운율감이 드러나면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문구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① 너와 나 우리 되는 세상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 ② 함께 뿌린 씨가 열매로 익은
우리들의 소중한 꿈
- ③ 여기저기 웃음꽃이 만발하는
우리들의 젊음의 향연
- ④ 작은 개울이 모여 만드는 큰 강물
작은 열정이 모여 만드는 큰 환희

9.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일반적으로 감기는 겨울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여름에도 감기에 걸린다.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먹거나 냉방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감기를 순 우리말로 고뿔이라고 한다. 여름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찬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하고 냉방기에 장시간 ㉡노출되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발을 꼭 씻어야 한다. 만약 감기에 걸렸다면 탈수로 인한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특히 감기로 인해 ㉣열이나 기침을 할 때에는 따뜻한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으로 조금씩 먹는 것이 좋다.

- ①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② ㉡은 피동 표현이 중복되므로 ‘노출되는’으로 수정해야겠어.
- ③ ㉢은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 ‘그러므로’로 바꾸어야겠어.
- ④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할 때’로 고쳐야겠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15).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 작용하는 /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은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흔이 우는 것이냐.

(나)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씹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 시대(時代)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 눈물과 위안(慰安)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握手)

(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라)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यो.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यो. / 내악수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왼손잡ियो.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①참나와는반대요마는 / 또꽤답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할수없으니편섭섭하오.

(마) 애비는 ㉠쫄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때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외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8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질 않을란다.

찬란히 띄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10. 윗글 (가)~(마)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비관적인 미래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아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 ③ 자신에 대한 신뢰에 차 있다.
- ④ 미래지향적인 의지가 두드러진다.

11. 윗글 (나)에서 현실 상황을 단적으로 나타낸 시어로서 구속과 부자유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 ① 옥첩방
- ② 밤비
- ③ 아침
- ④ 눈물

12. 윗글의 밑줄 ㉠~㉦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13. 윗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념적이며 의지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삶에 대한 치열한 의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생명과 삶의 본질을 남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14. 윗글 (라)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시형식을 거부하였다.
- ② 역설적 의미구조를 보인다.
- ③ 직관적 관찰이 섬세하게 이루어졌다.
- ④ 자의식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15. (마)의 밑줄 그은 ㉡~㉤에 대한 해석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불행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임을 나타낸다.
- ② ㉢ - 자아의 불행 원인이 역사적, 근원적 차원임을 나타낸다.
- ③ ㉣ - 성장기의 가난과 시련, 방향을 나타낸다.
- ④ ㉤ - 창조를 위한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20).

(가)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을(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콩지 같다) 양쪽으로 뽀죽히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 번 후딱 했다.

(나)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침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침에.”

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을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팬시리 골을 내려 고 든다. 뱀도 뱀이라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다)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멸썬룩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라)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언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떴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사실 빙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꺄꺄 웃더니(그러나 암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체하고 날 은근히 ㉡꿀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펍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체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콕 때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고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펍 ㉢쟁그라왔다.

(마) 그러나 이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 하면 장인님이 뭐라구 ㉤긱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뒤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 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띄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바) “자네 말두 하기야 옳지, 암 나이가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 참 바쁜 때에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거든!(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간 것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 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사경 받으려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 하나가 되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이제 겨우 열 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붓던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킁 소리 없이 왔다.

— 김유정, ‘봄봄’에서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반적으로 해학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대화나 행동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짐작할 수 있다.
- ④ 작중 화자의 행동은 독자에게 미움과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17. (가)~(라) 중, 다음의 밑줄 친 ‘양시론적(兩是論的)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은?

어떤 사안을 놓고 대립을 빚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하여 제삼자가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식의 양시론적(兩是論的) 태도를 취할 때, 얼핏 생각하면 이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중립적 태도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둠으로써 그 해결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18. 밑줄 친 ㉠~㉤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답답해서
- ② ㉡ - 괴롭히려고
- ③ ㉢ - 고소했다
- ④ ㉤ - 결과

19.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아, (마)의 꺾속말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혼인을 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네. 그렇다는 건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 ② “저 녀석을 어떻게든 구슬려서 일을 하도록 해 놓게. 그렇지 않으면 자네 재미없을 줄 알게나.”
- ③ “자네도 봐서 알겠지만 저 녀석 간덩이가 부었네. 무슨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니 자네가 주의를 좀 주게.”
- ④ “우리 애가 어떤 앤데 저런 녀석과 혼인을 시킬 수 있겠나? 그러니 자네가 나서서 저 녀석의 마음을 돌려놓아 주게.”

20. (바)의 ‘구장님’의 말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위협과 회유를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요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을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25).

어느 촌 농가에서 하루 저녁 잔 적이 있었다. 달은 흰히 밝은데, 어디서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주인더러 물었더니 옆 방에서 누에가 풀 먹는 소리였었다. 여러 누에가 어석어석 다투어서 뽕잎 먹는 소리가 마치 비오는 소리 같았다. 식욕이 왕성한 까닭이었다. 이 때 뽕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며칠을 먹고 나면 누에 체내에 지방질이 충만해서 피부가 긴장되고 윤택하며 옛빛을 띠게 된다. 그 때부터 식욕이 감퇴된다. 이것을 최안기(催眠期)라고 한다. 그러다가 아주 단식을 해 버린다. 그러고는 실을 토해서 제 몸을 고정시키고 고개만 들고 잔다. 이것을 누에가 한 잠 잔다고 한다. 얼마 후에 탈피를 하여 고개를 든다. 이것을 기잠(起蠶)이라고 한다. 이 때의 누에의 체질은 극도로 쇠약해서 보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다시 뽕을 먹기 시작한다. 초잠 때와 같다. 똑같은 과정을 되풀이해서 최안, 탈피, 기잠이 된다. 이것을 일령 이령(一齡二齡) 혹은 한 잠 두 잠 잔다고 한다. 오령이 되면 집을 짓고 집 속에 들어앉는다. 성가(成家)된 것을 고치라고 한다. 이것이 공판장에

가서 특등, 일등, 이등, 삼등, 등외품으로 평가된다.

나는 이 말을 듣고서, 사람이 글을 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한때는 문학 소년 시절을 거친다. 이 때가 독서열이 왕성하다. 모든 것이 청신(淸新)하게 머리에 들어온다. 이 때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그의 포부는 부풀 대로 부풀고 재주는 빛날 대로 빛난다. 이 때 우수한 작문들을 쓴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그는 사색에 잠기고 회의에 잠긴다. 문학 서적에서조차 그렇게 청신한 맛을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혹은 현실에 눈떠서 제 각각 제 길을 찾아가기도 하고 철학이나 종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직 침울한 사색에 잠긴다. 최안기에 들어선 것이다. ㉠한잠 자고 나서 고개를 들 때, 구각(舊殼)을 벗는다. 탈피다.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인생을 탐구하는 경지에 이른다. 그러나 정신적으론 극도의 쇠약기다. 그의 작품은 오직 반향과 고민과 기피에 몸부림친다. 이 때를 넘기지 못하고 그 벽을 뚫지 못하고 대결하다 부서진 사람들이 있다. 혹은 그를 요사(夭死)한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글을 탐독하기 시작한다. 전에 읽었던 글에서 새로움을 발견한다. 이제 이령(二齡)에 들어선 것이다. 몇 번이고 이 고비를 거뜬한 속에 탈피에 탈피를 거듭하며 자기를 완성해 간다. 그 도중에는 무수한 탈락자들이 생긴다. 최후에, 자기의 모든 역량을 뭉치고, 글때를 벗고, 자기대로의 세계에 안주한다. 누에가 고치를 짓고 들어앉듯 성가(成家)한 작가다. 비로소 그의 작품이 그 대소에 따라 일등품, 이등품으로 후세에 평가의 대상이 된다.

대개 사람의 일생을 육십을 일기(一期)로 한다면 이십대가 일령기요, 삼십대가 이령기요, 사십대가 삼령기요, 오십대가 사령기요, 육십대가 되면 이미 오령기다. 이제는 크든 작든 고치를 짓고 자기 세계에 안주할 때다. 이 때에 비로소 고치에서 명주실은 풀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뽕을 먹고 삭이니 만큼 자기가 부단히 고무되고 고초하고 탈피해 가면 지어 논 고치(境地)만큼, 실을 뽑는 것이다. 칠십이든 구십이든 가는 날까지 확고한 자기의 경지에서 자기의 글을 쓰고 자기의 말을 하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십대~육십대로 예를 들어 말한 것은 육체적인 연령을 말한 것은 물론 아니다. 육체적인 연령에 대비해 보는 것이 알기 쉽기 때문이다. 우수한 문학가는 생활의 농도와 정력의 신비가 일반을 초월한다. 그런 까닭에 이 연령은 천차만별로 단축된다. 우리는 남의 글을 읽으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는 수가 가끔 있다. ㉡“그 사람 재주는 비상한데, 밑천이 없어선.” “그 사람 아는 것은 많은데, 재주가 모자라.” “그 사람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어딘가 부족해.” “그 사람 아직 글때를 못 벗은 것 같애.” “그 사람이야 대가(大家)지, 훌륭한 문장인데, 경지가 높지 못해.” 나는 양잠가에서 문장론을 배웠다.

<윤오영의 ‘양잠설’>

21.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글쓰이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글이란 소송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듯, 꼼꼼하게 써야 하는 것이다.
- ② 글이란 풍부한 체험과 사색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써야 하는 것이다.
- ③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거나, 할 일이 없는 경우에 글을 쓰게 된다.
- ④ 글이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심성을 바른 데로 이끄는 것이다.

22. 양잠과 글쓰기를 연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뽕잎 - 서적
- ② 지방질 - 사색과 회의
- ③ 잠 - 작가의 재능
- ④ 고치 - 독서열

23.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 훼손되어 가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 ②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보편적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개성을 지녀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④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24. 위글의 밑줄 친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인과응보(因果應報)
- ② 부화뇌동(附和雷同)
- ③ 선공후사(先公後私)
- ④ 환골탈태(換骨奪胎)

25. 윗글의 밑줄 친 ㉡의 ‘논평’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 ① 독서량이 부족하다.
- ② 완성한 작품이 많지 않다.
- ③ 사색을 너무 심오하게 한다.
- ④ 글쓰는 기량이 뛰어나지 못하다.

26. 집합 $X = \{1, 2, 3, 4\}$ 의 부분집합 중에서 1과 2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a , 1 또는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b 라 할 때, $a+b$ 의 값은?

- ① 10 ② 12 ③ 14 ④ 16

27. 다항식 $P(x) = ax^3 + bx^2 + x + 1$ 이 $x^2 - 1$ 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와 b 의 곱 $a \times b$ 의 값은?

- ① -2 ② -1 ③ 1 ④ 2

28. $P(x) = x^4 + 2x^3 + 3x^2 + 4x + 5$ 를 $x - 1$ 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라고 할 때, 몫 $Q(x)$ 를 $x + 1$ 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 ① 0 ② 2 ③ 4 ④ 6

29. $x : y = 2 : 1$ 일 때, $\frac{x^2 - y^2}{xy}$ 의 값은? (단, $xy \neq 0$)

- ① $-\frac{3}{2}$ ② $-\frac{2}{3}$ ③ $\frac{2}{3}$ ④ $\frac{3}{2}$

30. 이차방정식 $f(x)=0$ 의 두 근의 합이 6일 때, 방정식 $f(4x-3)=0$ 의 두 근의 합은?

- ① 1 ② 3 ③ 5 ④ 7

31. 점 $(2,1)$ 을 지나고, 두 점 $(1,2), (3,-8)$ 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y=ax+b$ 라 할 때 상수 a, b 의 합 $a+b$ 는?

- ① 3 ② 4 ③ 5 ④ 6

32. 두 직선 $(k-2)x+3y-1=0$, $y=kx+2$ 가 평행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 ① $\sqrt{3}$ ② $\sqrt{5}$ ③ $\frac{2}{3}\sqrt{3}$ ④ $\frac{2}{3}\sqrt{5}$

33. 두 점 $A(-4, 7)$, $B(1, -3)$ 에 대하여 선분AB를 3 :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 Q라 할 때, 선분PQ의 중점의 좌표는?

- ① $(-5, -11)$ ② $(-5, 13)$ ③ $(3, -9)$ ④ $(5, -11)$

34. 함수 $f(x) = \sqrt{x-1} + 2 (x \geq 1)$ 일 때, $f^{-1}(x) = ax^2 + bx + c (x \geq d)$ 이다. 이 때, 상수 a, b, c, d 의 합 $a + b + c + d$ 의 값을 구하라.

- ① 1 ② 2 ③ 3 ④ 4

35. 함수 $y = |x| + |x-1| + |x+1|$ 의 최솟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36.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y = \tan x$ 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ㄴ. $y = \cos x$ 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frac{\pi}{2}$ 만큼 평행이동하면 $y = \sin x$ 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ㄷ. $0 \leq x \leq 2\pi$ 에서 $y = \sin x$ 의 그래프와 $y = \cos x$ 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37. 5개의 문자 a, b, c, d, e 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든 순열을 사전식으로 $abcde$ 에서 시작해서 $edcba$ 까지 나열할 때, $beadc$ 는 몇 번째에 있는가?

① 40

② 42

③ 44

④ 46

38. 행렬 $A = \begin{pmatrix} 1 & 0 \\ 1 & -1 \end{pmatrix}$ 일 때, $(A^{2013})^{-1} = \begin{pmatrix} p & q \\ r & s \end{pmatrix}$ 가 된다. 상수 p, q, r, s 의 합 $p+q+r+s$ 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39. 행렬 $A = \begin{pmatrix} 2n-7 \\ -1 & n \end{pmatrix}$ 의 역행렬 A^{-1} 의 성분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 의 값은?

- ① 1 ② 2 ③ 3 ④ 4

40. $\log_2 0.0625 + \log_{\frac{1}{3}} 3\sqrt{3}$ 를 계산하면?

- ① $\frac{5}{2}$ ② $\frac{11}{2}$ ③ $-\frac{5}{2}$ ④ $-\frac{11}{2}$

41. a 는 $\sqrt{2}$ 의 세제곱근이고, $\sqrt[3]{2}$ 는 b 의 네제곱근이다. $\log_a b$ 의 값은?

- ① 2 ② 4 ③ 6 ④ 8

42. 함수 $f(x) = 3^x$ 에서 $f(a)f(b) = 27$ 일 때, $a+b$ 의 값은?

- ① 2 ② 3 ③ 6 ④ 9

43. $a_1 = 4, a_{n+1} = 2a_n + 3 (n = 1, 2, 3, \dots)$ 으로 정의된 수열 $\{a_n\}$ 의 일반항 $a_n = p \cdot q^{n-1} + r$ 이라 할 때, 상수 p, q, r 의 합 $p+q+r$ 의 값을 구하라.

- ① 2 ② 4 ③ 6 ④ 8

44. 수열 $\{a_n\}$ 의 첫째항부터 n 항까지의 합 $S_n = n^2$ 일 때, $\sum_{k=1}^{10} a_{2k}$ 의 값은?

- ① 200 ② 210 ③ 220 ④ 230

45. 수렴하는 수열 $\{a_n\}$ 에 대하여 $\lim_{n \rightarrow \infty} \frac{3 - a_{n-1}}{a_n - 3} = 2$ 일 때, $\lim_{n \rightarrow \infty} a_n$ 의 값은?

- ① 1 ② $\frac{3}{2}$ ③ $\frac{5}{3}$ ④ 3

46. 무한수열 $\{a_n\}$ 이 $a_1 = \frac{1}{2}, a_2 = \frac{1+2}{2^2}, a_3 = \frac{1+2+2^2}{2^3}, a_4 = \frac{1+2+2^2+2^3}{2^4}, \dots$ 의 형태로 전개될 때, 무한수열의 극한값 $\lim_{n \rightarrow \infty} a_n$ 를 구하라.

- ① $\frac{1}{2}$ ② 1 ③ $\frac{3}{2}$ ④ 2

47. 이차함수 $f(x) = x^2 + 5x$ 에 대하여 $f(3) + f'(3)$ 의 값은?

- ① 30 ② 35 ③ 40 ④ 45

48. 곡선 $y = x^3 - x^2 + b$ 위의 점 $(1, b)$ 에서의 접선이 점 $(0, 10)$ 을 지날 때, 상수 b 의 값은?
① 11 ② 12 ③ 14 ④ 15

49. 다항식 $(x + a)^6$ 의 전개식에서 x^4 의 계수가 60일 때 x^5 의 계수는?
① 10 ② 12 ③ 14 ④ 16

50. 함수 $f(x) = (x - 2)^2(x - 8) + a$ 의 극소값이 7일 때, 상수 a 의 값은?
① 35 ② 37 ③ 39 ④ 41

(마지막 페이지입니다)